

군산 사드 배치 반발 여론 속 타지역 배치에 무게증심

# 전북, 안도의 한숨 속 신중모드 돌입

### 전방 50~100km 구역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주한미군 “수도권 등 보호 목적이라면 평택에 배치해야” 도 “최종 배치지역 결정하지 않아 긴장감 늦출 수 없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위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청과 주한미군의 타 지역 배치설이 흘러나와 전북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방사청이 국회에 제출한 사드 관련 정보자료 중 ‘시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최대 유효사거리에서는 고도 8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사일을 파괴하지 못할 경우 150km 가량을 더 날아가 사드가 배치된 곳으로

부터 50km(사드 최대 사거리 200km일 때), 또는 100km(최대 사거리 250km일 때) 전방에 공격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계산은 사드의 최대 유효사거리가 200~250km이며, 북한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사거리의 1/4에 이르면은 군 당국의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북한군이 스커드 미사일의 고사각을 낮춰서 쏜다면 사드의 전방 방어구역은 더 짧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는 배치된 곳으로부터 전방

50~100km, 후방 250km 구역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과 평택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평택~수도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요지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한미군 측도 사드의 평택배치에 무게중심이 실려 가고 있다.

15일 A일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최후순 배치 지역으로 경기 평택을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주한미군 소식통이 14일 밝혔다고 시사했다.

A일보는 “이 소식통은 ‘사드의 핵심 임무는 미군기지가 집결된 평택 지역, 청와대와 한미 군 지휘부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방어’라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14년 사드의 배치 검토 착수 때부터 평택을 최적의 후보지로 고려해 왔다’고 말했다.

이 측은 또 한국의 용지 수용과 환경영

향평가 절차 등을 준수하며 올 상반기가나 늦어도 연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쪽으로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이번 주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전북도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건설에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열기가 급랭할 것”이라며 “정부에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적지가 아니라 는 점을 정치권이 촉구했지만 최종 배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김춘진 의원 “지카바이러스 사태 적극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사진)은 15일 제34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전면에 나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카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전면에 나서 독립적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2015년 지카바이러스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왔으나, 아직까지 검출시약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적하며, 검출시약부터 진단키트, 백신개발을 위해 다각화된 연구개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차관급 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상됐다. /신광영 기자



### 19일 더민주 강동원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사진) 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강동원 의원의 지역사무소로 사용중인 전북 남원시 충청로 134번지(남원시청 삼거리) 소재 같은 건물에 마련한 ‘강동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은 물론 총선승리를 위한 출정식 겸 지역발전 포부와 출마의 변을 발표 예정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강동원 의원은 변함없이 상임위원을 보내 주시는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지역발전의 최선봉자가 되겠다고 결의를 다짐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도내 정치권 “사드 군산배치 안될말”

### 도내 의원들, 한민구 국방부장관 방문 등 빠른 대응 나서 군산시의회도 반대 나서… “한중경협단지 조성 약제”

도내 정치권의 ‘사드 군산 배치 강력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군산 새만금지역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1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규성, 김춘진 공동위원장과, 김윤덕, 김상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군산 새만금지역은 사드 배치의 적임지가 아니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최대사업으로 동서남북 2축 도로, 공항·항만 및 농생명용지를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진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드의 군산 새만금 배치설은 한중경협단지의 ‘충단선언’을 의

미한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저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도당위원장과 군산시의회도 사드 군산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오전 김관영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나 사드 군산 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사드 배치 협의 시 반드시 군산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는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손실과 피해가 전북도민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중 양국정상이 서명 후

양국정부가 아슬자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거론하며 “사드의 군산 배치 논의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사드의 군산 배치 논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정부는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사드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전혀 결정된바 없다”며 “앞으로 사드배치는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의논할 것이며,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또한 사드 배치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에 정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0만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반

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틈을 타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 결정을 하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3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항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국가 최대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군산 발전을 위해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약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을 사드배치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지역정치권 및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 저 총선 출마합니다

### 더민주 전정희 의원, 익산을 재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전정희(익산을·사진) 의원이 “돌아오는 익산을 만들겠다”며 4·13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1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반민주와 저성장 양극화로 인한 사회공통화 등으로 장기적인 늪에 빠져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치불응은 그만두고 민생속으로 뛰어들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맞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동안 민의를 수렴하고 시



민들의 열망을 법률과 정책,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국가산단 리모델링 2600억원 정부사업 유치 결연, 익산의 유턴기업 메카 조성, 미르사지 복원 등을 위한 23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실천했다”며 “18대 국회에서 9.100억원이었던 익산시 국가예산을 19대 국회에서 132.5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4년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해 떠나는 익산이 아닌 돌아오는 익산을 만들겠다”며 “미래의 먹거리력을 제공하는 경제, 함께 잘살고 행복한 공동체 익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일 기자

### 이석권 예비후보 “정동영, 무소속 출마해야”

이석권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이석권 선거사무소에서 정동영 전 장관에게 무소속으로 출마 결단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후보는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아파 알 줄 아는 생활 속의 정치를 원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고 시민과 국민들을 이용해, 정당의 권력을 만들어가



려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전북 정치를 이끌어온 정동영 전 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처럼 전북정치의 정신적 지주로서, 소신의 정치인으로, 전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간절한 비유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동영 전 장관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좌고우연 연연하지 마시고 무소속의 소신으로, 당당히 일어나 전북의 큰 중심에서 서서, 다시 한 번 모범이 되어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4.13 정치혁명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결단의 제안을 말했다. /익산=장왕일 기자

### 김연근 예비후보 “군산 사드배치 강력 반대”

국민의당 김연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을·사진)는 군산이 사드배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강력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연근 후보는 “최근에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로 전북 군산이 거론되는 것은 전북 말살이다”면서 “사할을 걸어서라도 사드배치를 저지 하겠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민의 오랜 꿈과 희망인 새만금은 국가 최대 사업으로 수조원이 투자되고 내부개발이 결합 진행 중인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군산배치 거론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서 공식 지정해 한중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국제공항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 배후도시인 익산 국가식품산업단지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전북 혁신도시에 KTX 신역사 건설해야”

#### 더민주 안호영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진주망주·사진)는 15일 “전북 혁신도시에 KTX신역사를 건설하고 동서횡단철도를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망주 등 전북 동부내륙지역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며 “철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해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익산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 호남선 신역의 설치 시급



한 상황에서 전주, 김제, 완주지역 100만도민의 철도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고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KTX호남선 전북혁신도시 신역사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동서횡단철도를 조기 착공해 새만금으로 들어오는 유커와 한류마음을 찾는 1천만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완주의 선진농업 벤치마킹, 진안 인삼홍삼한방야채 구입, 장수 한우와 사과 판매, 무주 청정자연과 스키 관광 등을 아우르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후보는 “선거구가 확정되면 KTX 혁신도시 신역사 건설과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 신약관광 진흥을 위한 임팩트투자 정책개발에 힘을껏”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개발한 전북발전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 엄운상 예비후보, 국민의당으로 당적 변경

엄운상 예비후보(전주완산을·사진)는 15일 전북도 선관위에 국민의당으로 당적 변경을 완료했다.

엄운상 예비후보는 “전북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완산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지극지극한 지역차별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전주를 호남의 중심으로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인 엄 후보는 지난 12월 무소속으로 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신광영 기자



### 양현섭 예비후보, 새누리당 방문 공천서류 접수

새누리당 양현섭(전주덕진·사진) 예비후보는 15일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방문,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후보자추천서류를 접수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공천서류를 접수 했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전북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때에도 전북에서 여, 아를 통틀어 가장 먼저 전북도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



### 바로잡습니다

2월 15일자 3면에 게재된 ‘더민주 강발문 전 익산국토청장과 관련, 강 전 청장이 국회의원이 아닌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